

ESG Wannabe

SK증권 스마트시티추진실
자동차/철강 권순우. 3773-888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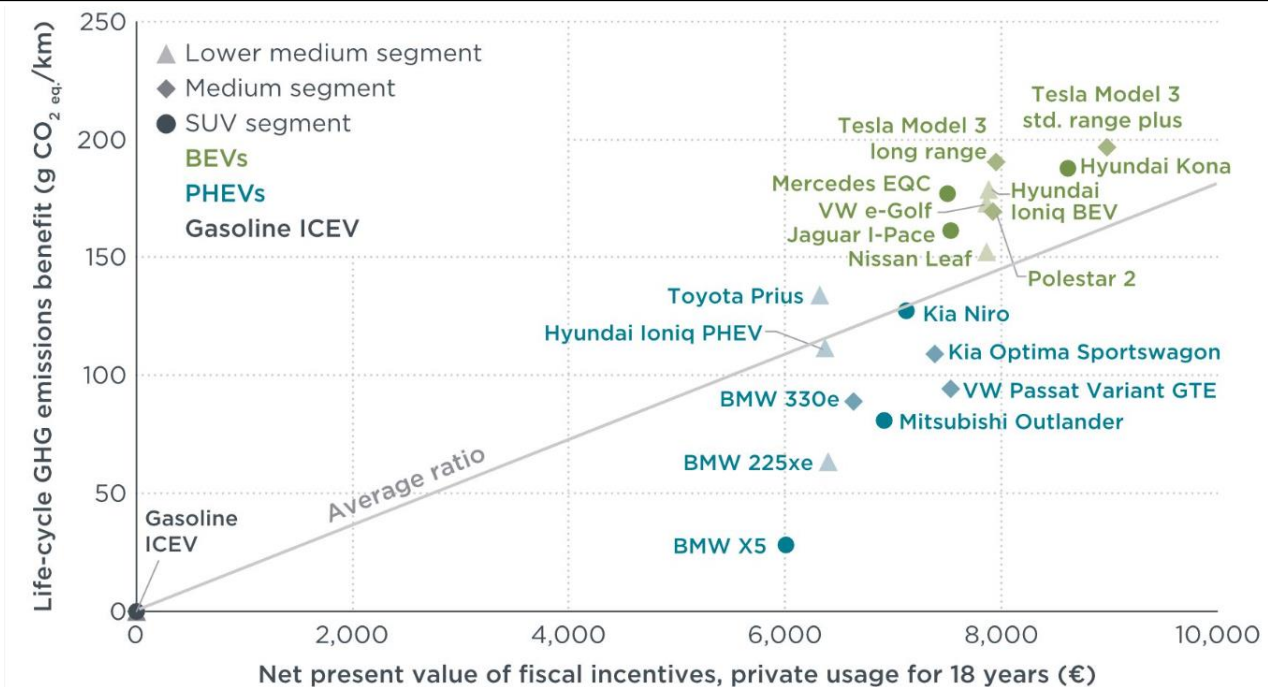


효과적인 기후 정책을 위한 현실적인 평가

● 독일의 사례 - EV/PHEV의 온실가스 배출과 인센티브

- 효과적인 기후 정책을 위해서 온실 가스(GHG) 배출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. 환경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많은 정책 비용이 지불되고 있기 때문
- 최근 독일에서 관련한 보고서가 발표. 현재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순수전기차(EV)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(PHEV)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
- 통상적으로 순수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, 하지만 동급의 내연기관과 비교하여 전기차는 57~67% 가량 온실가스(GHG) 배출량이 낮음. 해당 값은 연료 및 전기 생산, 배터리 및 차량 제조 등이 포함한 생애주기 기준
- PHEV도 가솔린 대비 10~52% 가량 온실가스 배출 감소. 다만 충전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빈도가 높음에 따라 공식적인 배출량보다 통상 2~3배 가량 많이 배출되는 경향. 개인이 아닌 회사(Fleet) 차량인 경우 4배까지 상승
- 결론적으로 PHEV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대비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고, 일부에서는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함.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등이 축소될 필요
- 앞으로도 생애주기 관점에서 비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는 지속될 전망, 이에 따른 정책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

내연기관(가솔린) 대비 생애주기 관점에서 EV/PHEV 내 주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와 지급되는 인센티브 - 독일 기준



자료: THE ICCT, SK증권, 주: 2021년에서 2038년까지 사용 가정

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→매수 / 15%~15%→중립 / -15%미만→매도